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FY08.상반기 실적, 생보사는 악화 vs 손보사는 선방

- 최근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자산운용 여건 악화로 FY08.상반기 생보사의 당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5.7% 감소한 7,474억원을 기록한 반면, 손보사는 전년동기와 유사한 1조 109억원을 실현하였음.
 - 손보사의 경우 자산운용 악화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실적증가(FY07.상반기:8.2조원 → FY08.상반기:9.6조원) 및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(FY07.상반기:73.4% → FY08.상반기:68.1%)에 따른 자동차보험 부문의 영업이익에 기인한 것임.
- 보험영업 현황에 있어서는 생보사의 수입보험료가 36조 2,82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.5% 소폭 성장한 반면, 손보사의 보유보험료는 17조 76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.9%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.
 - 생명보험의 경우 신계약 감소 등으로 종신보험, 연금보험 등 일반계정 상품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보험료 유입이 지속되면서 특별계정의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음.
 - 손해보험은 개인건강보험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장기손해보험의 보유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이 전체 손해보험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은 54.2%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.
- 생·손보사의 재무건전성은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이 08.9월말 기준으로 184.4%를 기록하면서 3월말보다 52.7%p 감소하였으며,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8.2%p 하락한 260.5%를 기록하였음.
 - 이는 생·손보사 모두 주가하락,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장기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급여력금액이 감소하게 된 것임.

(FY08.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분석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, 11/18)